

추가연장근로제 연말 일몰...속타는 지역 중기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에 인력난·경영난 불 보듯 "벌금 감수 불법 저질러" 하소연... "일몰 폐지 항구화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내년부터 정말 대책이 없네요."
전남에서 수도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업 대표 이모(42)씨는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까지 겹쳐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올해 말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유례없는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이씨의 회사에서는 12명의 근로자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통해 24시간 공장을 가동 중이다. 하지만 내년 추가연장 근로가 불가능해지면, 새벽 2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공장 문을 닫고 가동을 멈춰야 한다.
이씨는 "원청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많을 때는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추가연장 근로가 불가피하다"며 "기적이거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부담이 큰 반면, 사람을 뽑고 싶어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도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면서 지역 중소기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데다,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
26일 광주·전남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통해 노사가 합의하면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었지만, 해당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당장 내년부터는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선 신규 인력 채용하는 것밖에는 해결 방안이 없다.
하지만 30인 미만 중소기업 대다수가 영세 사업장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더구나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계의 경우 취업을 하려는 구직자들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등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광주의 19명 미만의 소규모 제조기업체는 1만902개사, 전남은 1만6121개사에 달한다. 이들 기업 상당수가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당 제도의 일몰로 인한 지역경제가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원청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주문받은 물량을 제 시간에 납품해야 하는 3차, 4차 소규모 하청업체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의 한 가전 부품업체 대표는 "제도가 폐지되면 납품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된다"며 "연장수당도 줄어든게 돼 회사를 다니던 기존 직원들도 퇴사해 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제조업계의 문제만이 아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추진 중인 광주지역 IT업계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프로그래밍과 연구개발(R&D) 업무 특성상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을 지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 가지 프로젝트나 업무에 오랜 시간을 들이게 될 수 있고, 밤을 새워 작업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지역 IT업계는 '프로그래머, 개발자 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AI 관련 산업이 확장하면서 개발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광주에 있던

기존 개발인력이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있는 데다, 숙련된 개발자를 채용할 수 없어 '올며 겨자 먹기'로 신규 직원을 뽑아 일을 가르쳐도 경력을 쌓아 이직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광주의 한 IT기업 대표는 "하청을 받는 입장에서 프로젝트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며 "하청을 받은 프로젝트를 짧은 기간 내 처리해야 할 때 밤을 새우는 등 추가 근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자 신규 채용도 어렵지만 개발 업무 특성상 한 가지 프로젝트에 여러 개발자가 붙는다고 일을 빨리 끝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IT기업은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법으로 막아 놓으면 먹고 살기 위해 벌금을 내더라도 일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중기중앙회 조사를 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0%가 추가연장근로제에 의존하고 있고, 75.5%는 일몰이 도래하면 대책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해당 제도가 사라지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인력난 등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한 영세기업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중소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화해주길 정부와 정치계에 절실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깨끗한 조합장 선거" 전남농협, 축협 조합장 설명회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26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 전남 축산농협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전남 축협운영협의회(위원장 순천광양축협 이성기 조합장)에 참석한 축협 조합장 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남농협은 내년 3월 치르는 '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 주요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김동현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의 강의도 이어졌다.
내년 3월8일 조합장 선거에서는 전남지역 142개 조합장(담양농협·여천농협 제외)이 새로 뽑히게 된다. 담양농협과 여천농협은 최근 조합 간 합병을 단행했다.
전남농협은 선거의 원활한 진행 및 관리를 위해 지난 7월1일 '전남농협 선거관리단'을 구성하고,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지도·지원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박서훈 전남본부장은 "전남농협은 내년 동시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전남선관위와 협조하겠다"며 "전남 농축협 조합장 또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노사 상생 위한 판결돼야"

광주·전남 경영계 호소문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상여파기 환송심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경영계가 "노사 상생할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을 바란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광주경영자총협회와 전남경영자총협회는 26일 '향토기업, 금호타이어를 살립니다'라는 호소문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1960년 창립 이래 지난 60여년간 우수한 타이어 품질과 기술력으로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타이어 제조사로, 호남을 대표하는 대기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6조

8000억원 매출을 달성, 1500명의 지역민을 채용하는 등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호남 향토기업인 금호타이어가 다음 달 16일 통상임금 상여 소송 파기 환송심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경영계는 "최종 선고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약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으로, 선고 결과는 호남지역 산업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이후 현재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이 5000억원을 넘어섰고, 2023년 말 약 1조 원대 부채 만기가 도래하고

는 상황에서 2000억원의 우발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면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제2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금호타이어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다가오는 1조원대 단기채무가 있는 점,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노사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금호타이어 노사도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노사 화합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국가와 지역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가운데)이 자회사인 'JB증권 베트남'(JBSV) 우수 직원 7명을 본점에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동남아 진출 기반 다진다

베트남 자회사 직원 초청 연수

베트남에 해외 첫 자회사를 낸 광주은행이 동남아시아 투자금융(IB) 사업 진출 기반을 다지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25일까지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인 'JB증권 베트남'(JBSV) 우수 직원 7명을 본점에 초청해 격려하고 5박 6일 연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판반안 JBSV 부대표 등 현지 우수 직원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광주은행 본점에서 최근 열린 '4분기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해 영업 현황을 직접 보고하고, 회의의 모든 과정에 동참했다. 광주은행 프라임PB센터와 한국증권거래소, 국내 증권사 등을 탐방하며 선진 금융을 익히기도 했다. 이외 서울과 광주, 담양 등 국내 명소를 찾아 한국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베트남 증권사인 모건스탠리 게이트웨이 시큐리티(MSGS)의 지

분 100%를 인수하고, 광주은행 최초의 해외 자회사인 JBSV를 출범시켰다.
베트남 하노이에 거점을 둔 JBSV에는 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유망한 현지 투자 기회를 발굴해 국내외 투자자에 연계하는 역할을 맡았다.
올해는 현지 기업 대상 회사채 발행 주선 등 투자금융(IB)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6월에는 주식, 채권, 선물 등 거래를 중개하는 브로커리지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JBSV는 인수 첫해인 2021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올해 9월 말 기준 총자산 522억원, 당기순이익 12억원을 나타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긍정적 시너지 창출과 양 사간의 소통 증대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JBSV가 베트남 금융시장에서 강소 증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광주은행과 JBSV가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해 하나된 큰 목표를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공장 건설을 알리는 첫 삽을 뜨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차그룹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 조기 착공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전기차(EV) 톱 티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미국 전용공장 설립을 공식화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퍼스트 무버'(선도자) 지위를 다진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25일(현지시간)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전기차 전용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은 HMGMA 부지 현장에서 열렸다. 주요 참석자들이 공장 건설을 알리는 첫 삽을 뜬 직후에는 HMGMA와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서버나 '엔마켓 아레나'에서 2부 행사가 열렸다.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2부 행사에는 일반 시민들도 참석해 신공장 기공식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은 전기차·로보틱스 등 최신 모빌리티 기술뿐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의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했다.
이번 HMGMA 기념 행사에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리파엘 위녹슨 오소프 연방 상원의

원, 버디 카터 연방 하원의원,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 조태용 주미대사 등 한·미 양국의 정·관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에선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현대차장 재훈 사장과 호세 무노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사장) 등 최고 경영진이 자리를 함께 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축사를 통해 "현대차그룹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이 혁신적인 공장의 기공식은 조지아 주에서 전례 없는 경제 성과"라며 "조지아 주는 이번 파트너십이 오랜 기간 유지되길 기대하며 현대차그룹의 투자 효과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은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현대차그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 최적의 파트너를 드디어 찾게 됐다"며 "조지아와 현대차그룹은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전 세계가 선망하는 최고 수준의 전기차 생산 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HMGMA는 1183만㎡(약 358만평) 부지에 연

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착수해 2025년 상반기부터 전기차 양산에 들어간다.
현대차그룹 차원의 첫 공장인 HMGMA에선 현대뿐 아니라 기아, 제네시스 등 3개 브랜드의 전기차를 생산한다. 다차종의 전기차를 탄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현지 고객의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HMGMA를 최고 수준의 미래형 혁신 공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 실증 개발한 제조 혁신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했다.
글로벌 배터리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배터리 셀 공장을 HMGMA 인근에 설립해 완성차부터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전기차 제조·판매와 관련한 현지 조달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대차그룹은 HMGMA와 국내 전기차 공장 2곳을 발판삼아 2030년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323만대를 판매해 세계 시장 점유율 12%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2030년 84만대 판매를 목표로 뒀다. /박기용 기자 pboxer@

청년도전지원사업 기간·수당 대폭 확대

노동부, 5개월 이상 프로그램 신설·수당 50만~300만원 지급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고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과 참여 수당을 대폭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수당은 기존 20만원에서 단기 프로그램은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은 최대 300만원으로 증액된다.
작년에 시작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구직 단념에 이르는 청년, 북한이 탈청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 사이에서는 프로그램이 1~2개월로 짧아 아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노동부는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참여 수당도 늘렸다.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장려금은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된다.
노동부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다양한 일 경험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5일 이내 단기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실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프로젝트형 일 경험, 기업 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등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모도 확대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49.56(+14.49)
↓ 코스닥	683.17(-5.68)
↓ 금리(국고채 3년)	4.208(-0.013)
↓ 환율(USD)	1426.60(-6.50)